

뒷간과 화장실 미학



글 | 상정 무림교역대표/한화첩 이사

고대의 배설문화

인류학에서는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10만년 전의 '네안데르탈인(Neanderthal-人)' 부터 라고 본다.

4만년 전에 시작된 최후의 빙하기(氷河期)는 약 1만년 전에 끝났는데 이때 현재의 인류와 거의 흡사한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가 나타났다 고 한다.

이와 같이 유구한 과거의 원인(原人)들도 살아 있는 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 전해진 것은 겨우 수천 년밖에 안 된 과거에 불과하니 이들의 식생활과 배설에 관한 사실들을 자세히 알 길은 없다.

인류문명의 발상지는 주로 기후가 좋은 하천유역으로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나일강, 인더스 강 그리고 중국의 황하유역 등이었다.

Mohenjo-daro

BC 3000~ BC 1500년에 번영하였던 인더스 문명 중심의 도시. 완벽한 배수 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건물, 토크 욕장(浴場), 곡물 창고 등 당시의 완벽한 도시계획이 엿보이는 유적이 다수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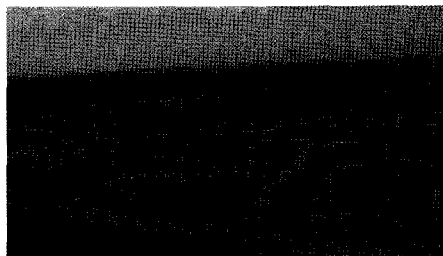


▲모헨조다로유적지(1)

Sumer

바빌로니아 남부에서 발달한 인류 최고(最古)의 문명. BC 5000년경부터 농경민이 정주하기 시작한 후 BC 3000년경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이들 4대 문명 발상지에서 고대의 조상들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서 마음대로 배설행위를 하면서 살았다.



▲모헨조다로유적지(II)

고대변기의 유물

인간의 배설행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나 유물은 이미 기원전 3,000년대부터 1,400년대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실은 인도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금의 수세식(水洗式)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물이 흘러가도록 시설하여 그 위에 배설하게 했다는 점에서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던 바빌로니아의 유적지인 고도(古都) 우르 지방에서도 기원전 2,200년의 수세의자식 변기가 발굴되었다. 하수관을 통해 분뇨를 수세용수(水洗用水)와 함께 건조



▲구인문의 협의회 사무국
(☎ 031-226-7001)

지난 몇 년간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의 화장실문화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고속도로 곳곳의 휴게소 화장실과 전국 여러 곳의 화장실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나 화장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화장실에 대한 역사와 참고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한다. 본 내용은 '호모토일렛(Homo Toilet)'에서 발췌하여 기술한다. (편집자)

- 다음호에 계속

한 모래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써서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크레타 섬의 크넷소스 궁전(지중해 미노아 문화의 중심지)에도 기원전 1,700년에 이미 도기(陶器)로 된 변을 받는 접시형 틀과 나무로 만든 변좌(便座)가 갖추어진 수세식 변기가 발굴되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뇨에 관한 문자의 기원

[고대중국]

중국 한자의 기원쯤 되는 원시 문자에 갑골문자(甲骨文)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자라의 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돌로 만든 칼을 이용하여 사물의 모양을 본따 문자를 새긴 것을 말한다.

중국의 고대국가인 은나라(殷, BC 1,400~1,027)의 각지에서 발굴 된 이 수만 편의 갑골문은 현재 약 3천 자가 해독되었는데 현대의 한자와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인간의 배설물에 관한 분뇨(糞尿)의 글자는 갑골문에서는 사람(人)자에 소변을 하는 모양을 그린 것이 [屎]자로 변천되었으며, 대변을 하는 모양을 그린 것이 [屎]자로 변천되었다고 한다. 이 때(尸)는 사람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尸)자의 변천이며, 이 인체에서 나오는 물(水)을 [屎]로, 쌀(米)을 먹는 모양을 [屎]자로 나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먹은 쌀이 변(糞)해서 배설되었다는 뜻으로 [屎]자는 [糞]자로 변천되었다. 따라서 이 [糞]자는 미곡(米穀) 즉, 곡식과 관계가 있으며 인류가 정착을 하고 농경생활을 시작하던 시대 때 이미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트에서 발굴된 스카라베 문양이 들어간 정사


[이집트의 스카라베]

고대 이집트의 상징문자(象徴文字)에 '스카라베'(쇠똥구리)라는 것이 있다. 스카라베는 사막에 살면서 그 사막을 지나

나타나 사람의 똥이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그것을 사막의 모래 위에 열심히 굴려 공 모양의 덩어리를 만들고 사막의 어느 구석에서나 그것을 먹고, 그 속에 알을 낳으며 살아간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재미있게도 이 곤충을 '태양의 사자' 또는 '신성한 곤충'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스카라베가 분(糞)을 굴리고 다니며 태양과 비슷한 구체(球體)로 만들기 때문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스카라베를 행운과 재생(再生)의 상징으로 생각했으며 스카라베 모양을 고대 왕의 묘나 비석에 새겨 넣었다.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여자들은 반지나 브로치에 이 문양을 새겨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 



▲고대이집트에서 태양의 사자라 불리는 쇠똥구리의 모습